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깊어진 삶을 주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로 살리

내 모습 이대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5장 1-11절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너 시험을 당해 (찬 342)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정기당회가 8월 10일(월) 오후 7시 30분에 영상으로 합니다.
3. 8/30(주일)부터 - 9/2(수)까지 자녀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차유미 전도사)
4.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6.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현장예배에서 직접하시거나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모이는 교회

요즘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영터리 영어가 하나 있는데 'Untact'라는 말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말을 할 때, 한국에서는 “비대면(contactless)”이라는 말 대신 영어적 표현인 언택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국에서 탄생한 영어 단어입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에게 가장 부각되는 것은 비대면이란 말입니다. 현장예배와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도 영상으로 하고 있고, 당회와 교역자 미팅 그리고 목장 모임도 현재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 정기노회도 영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진행될 것에 대한 예상은 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던 201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충격이 그 변화를 가속화 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고, 모임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집단인 교회는 직면한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수 없습니다. 비대면 사회는 인간관계가 기계화, 파편화, 부속화, 비인격화 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플랫폼에 들어가더라도 신앙은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선교, 봉사, 교제 등 모든 것이 주님과 만남을 통해, 성도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통해 예배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카타콤(지하무덤)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9,392